

제1절 고목1리(古木一里)[속명 : 지정(芝亭)]

1. 마을의 자연환경

쇠치봉(鼎峙峯)의 동쪽 지맥(支脈)인 가치산(迦治山) 아래에 있는 마을로 동쪽은 독산(獨山) 덕천장유대(德川將遊臺), 서쪽은 가치산(迦治山), 남쪽은 화성리(花城里)와 접하고, 북쪽은 만금산(萬金山) 신화리(新花里)다. 마을회관은 2004년에 건립되었으며, 고목초등학교는 폐교되었다. 최근 운동장에서 마을 공동기금으로 태양광발전소가 조성되어 있다.

2. 마을의 역사

1390년경에 7성(七姓)의 선비들이 가치산골(迦治山谷)에 이르러 마을을 개척하고 글방을 만들었다. 고문(古文)이 전(傳)하기를 “가치산하유지장서재(迦治山下有智藏書齋)”라 하여 지장골(智藏谷)이라 하였다. 그 후 송학정(松鶴亭)에 모인 선비들이 지장(智藏)이란 지명을 지정(芝亭)으로 개칭하였다. 가리(迦里)는 가치산(迦治山) 바로 밑의 마을로 임진왜란 때 울진 의병용장(義兵勇將) 김언륜(金彦倫)의 출생지다. 전곡(前谷)은 지정(芝亭) 앞산 너머에 있는 골(谷)로, 산태미처럼 되어 청룡(靑龍), 백호(白虎)가 싸고 있어 큰 인물(人物)이 난다고 하였다. 고등(古等)은 1545년(인종)에 현풍 곽씨(玄風郭氏) 입향조(入鄕祖)가 개척한 곳으로 만금산(萬金山) 줄기 밑에 위치하였다. 화리재(峴)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꽃저(花底)라 하였는데, 이것이 꽃저로 변음되면서 고등(古等)으로 이름 지어진 마을이다. 구장(龜藏)은 진사(進士) 전구원(田九苑)의 숙소(宿舍)인 구장(龜藏)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지명이다. 그 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고목리(古木里)로 개칭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80세대가 거주하며 담양 전씨(潭陽田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전주 이씨(全州李氏)가 주로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가치산(迦治山)

일명 절상봉이라 한다. 우뚝 솟은 벼가래 모양의 산[201m]이며, 고려 때의 절골 불민골

이 산 아래에 있고 임란 때 의병장 김언륜(金彦倫)이 전술을 연마하던 곳이다.

2) 성황당(城隍堂)

독산(獨山) 안에 성황이 있어 매년 음력 정월 15일에 제사를 올린다.

3) 옥정사(玉亭寺)

북면 고목리 지장동 가치산 아래 불민골(佛信谷)에 있는 절로 승려 대각(大覺) 서순석(徐順石)이 신도 남재칠(南載七) 외 여러 명과 더불어 1954년 5월 16일에 칠성각을 창건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1955년에 신도들이 법당과 객사 2동을 세웠다. 승려 대각이 입적하자 그의 아들 승윤(乘潤) 서창원(徐蒼圓)이 취임하여 수행하다가, 10년 후에 신도들의 뜻을 모아 절터를 확장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 준공하였다. 1997년 4월 16일에 기존의 법당, 칠성각, 객사 등을 모두 철거하고 절터를 확장하여 대웅전을 중창하였으며, 산신각, 요사, 부속사 등 5동을 신축하였다.

4) 학수샘

노송(老松) 아래 학이 물을 먹었다는 샘(泉)이 지정마을 안에 예로부터 있다. 지금도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의 웅덩이가 있어 학수샘(鶴水泉)이라 부른다.

제2절 고목2리(古木二里)[속명 : 무령(武靈)·기곡(基谷)]

1. 마을의 자연환경

태백준령(太白峻嶺)인 쇠치봉(鼎峙峯)의 동쪽 지맥(支脈)이 내평들을 안고 있으며, 동쪽으로 덕천리(德川里) 마분동(馬墳洞)과 인접하고 동해와 후정리의 장수봉(峯)이 바라보인다. 서쪽은 범재(虎嶺), 남쪽은 남산(南山)과 시목리(柴木里)가 있으며, 북쪽은 뒷산인 봉화산(烽火山)이 있고, 시리골과 수리골 너머에 울진원자력발전소가 있다. 마을회관은 2003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최근 신한울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외지인들이 투자 등의 목적으로 소규모 단독주택을 대거 조성하였다.